

차 례

1.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2. 함.커.반 19기 시화 창작소
3. 함.커.반 19기 글쓰기 창작소
4. 함.커.반 19기 이모저모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 이름: 허준성



내가 좋아하는 것

피구, 훌라후프

나의 장점

피구공을 잘 잡는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경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안녕? 나 준성이야.

나는 너희들이랑 친해지려고 해!

괜찮지?

내가 소심한 성격이라 친해지지 못하는데,

먼저 친해지자고 말해주면 내가 더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잘 부탁해!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 이름: 구한결



내가 좋아하는 것

신발, 옷 등 의류

나의 장점

달리기를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공부 더 잘하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이번에 5학년 동안에 사이좋게 지내자.
다음에 또 만나면 잘 지내보자.

너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앞으로도 잘 지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3 이름: 김가운



내가 좋아하는 것

복숭아, 미술, 눈, TXT

나의 장점

목소리가 크다, 활발하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아티스트, 화가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안녕? 함커반 19기 친구들
이제 진짜 3개월 즈음 남았네.
너무 빨리 갔어. 나는 3개월 즈음 지난 줄 알았거든.

지난 6개월 동안 잘 지내줘서 고마워.
남은 3개월 동안 더 친하고 멋지게 지내자.

수업도 잘 듣고, 잘 놀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4 이름: 김두나



내가 좋아하는 것

친구

나의 장점

즐겁게 놀 수 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요리사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허준성, 구한결, 김가운, 김두나, 김민제, 김서울, 김서현,
김수현, 김아윤, 김희원, 박승찬, 박시후, 박정호, 박주하,
박지후, 박현승, 백라엘, 백주원, 변하준, 서은준, 서형석,
윤동준, 이은채, 이채윤, 전가을, 최승아, 최진혁

안녕하세요. 저는 용현초등학교 5학년 3반 입니다.
우리반 함커반 19기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현초 함커반19기 친구들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박종원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두나올림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5 이름: 김민제



내가 좋아하는 것

가족, 공룡, 포켓몬, 크레페

나의 장점

생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버추얼 유튜버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김민제야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6 이름: 김서울



내가 좋아하는 것

떡볶이, 그림그리기

나의 장점

그림을 잘 그린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웹툰 작가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친구들, 안녕?

난 원래부터 조용하거나 하진 않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친한 친구들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것 같아.

너희들이 먼저 말 걸어주면 더 친해질 수 있으니 잘 부탁해.

6학년 될 때까지 목소리 크게 하는 것을 노력해볼게.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7 이름: 김서현



내가 좋아하는 것

요리 만들기

나의 장점

요리 만들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요리사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안녕, 애들아?

너희들에게 쓰는 편지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한 번 짚은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

난 요리와 만들기를 좋아하고, 요리사가 꿈이야.

그리고 난 함커반 19기야.

우리 함커반 19기는 항상 흥이 넘쳐나.

웃기고 재미있는 우리 함커반이지.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8 이름: 김수현



내가 좋아하는 것

동물

나의 장점

축구를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브롤스타즈 30,000 찍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얘들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얘들아, 친하게 지내자.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자.

얘들아, 행복하렴.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9 이름: 김아운



내가 좋아하는 것

강아지, 오이

나의 장점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인기 많고, 귀엽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평범하게 살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친구들아,

아주 멋지고, 잘 태어났고

3개월 동안 잘 지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0 이름: 김희원



내가 좋아하는 것

연필

나의 장점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사진 기자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친구들에게!

얘들아,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1 이름: 박승찬



내가 좋아하는 것

수영, 게임

나의 장점

수영, 게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친구랑 잘 지내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친구들아!
그 동안 잘 지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친하고 재밌게 생활하자.

항상 고마워 애들아.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2 이름: 박시후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

나의 장점

친구들에게 친절하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축구선수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친구들에게

얘들아, 2학기도 잘 지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3 이름: 박정호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 오해원, 엔믹스

나의 장점

공부를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세계적인 사업가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19기 친구들에게.

안녕? 애들아. 우리가 만난지 벌써 자그마치 200일이 넘었네.

지금까지 잘 지냈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4 이름: 박주하



내가 좋아하는 것

음식, 운동, 게임(체스/야구/축구)

나의 장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요리사 또는 운동선수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친구들에게.

얘들아, 남은 3개월 동안 잘 지내자.

수업도 열심히 하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5 이름: 박지후



내가 좋아하는 것

옷사기, 춤추기, 다이어트 하기

나의 장점

춤, 노래, 운동을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프로레슬러 또는 댄서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준성이는 공놀이를 잘하고 잘 생겼어.

서울이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

한결이는 달리기가 빨라서 좋겠다. 그리고 잘 생겼어.

하준이는 너무너무 귀여워.

아윤이는 너무 예뻐.

서현이는 항상 착하고 시끄럽지 않고 너무 좋아.

우리 모두 우리반을 위해 사랑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6 이름: 박현승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

나의 장점

친구들을 즐겁게 해준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나만의 회사 차리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친구들아.

지금까지 잘 지내줘서 고맙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자.

그럼 안녕.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7 이름: 백라엘



내가 좋아하는 것

댄스, 운동, 가족, 계단 오르기

나의 장점

끈기 있음. 수학 잘 함. 편식 안 함.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유치원교사 또는 외교관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19기 친구들아 안녕? 나 라엘이야.

내가 어려운 부분도 도와주고, 안 되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잘 지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8 이름: 백주원



내가 좋아하는 것

음식, 게임

나의 장점

발표를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유튜버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얘들아,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19 이름: 변하준



내가 좋아하는 것

피구

나의 장점

피구와 운동을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피구선수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0 이름: 서은준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마인크래프트), 보드게임, 운동

나의 장점

친구들을 즐겁게 해준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멋진 사람 되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친구들에게.

얘들아, 안녕? 나는 서은준이야.
내가 너희를 재미있게 해 줄 때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해.

남은 5학년 잘 지내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1 이름: 서형석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 체스

나의 장점

게임을 잘 한다. 공부도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힘안들게 돈 벌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이유는 나랑 놀아주고, 친하게 지내주기 때문이야.

정말 고마워.

함.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2 이름: 운동준



내가 좋아하는 것

돈

나의 장점

게임을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내 집을 사고 싶다.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안녕, 함.키.반 친구들아?

지금까지 잘 지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라께!!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3 이름: 이은채



내가 좋아하는 것

핑크, 벚꽃, 친구, 망고젤리, 아빠

나의 장점

글씨 예쁘게 쓰기(글씨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핑크 바지와 티셔츠 입고 학교 다니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안녕? 애들아.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잘 지내자.

잘~~~~~ 지내보자. (제발)

안녕!!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4 이름: 이채운



내가 좋아하는 것

세븐틴

나의 장점

롱보드를 잘 탄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즐겁게 살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얘들아, 안녕?

우리가 벌써 같은 반 된지 6개월이 되었어.
마니또도 하고 생일파티 등을 같이해서 좋았던 것 같아.

남은 날이 거의 4개월 남았지만,
그 때 동안 잘 지내고,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5 이름: 전가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가족, 배드민턴

나의 장점

키가 크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선생님 또는 모델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작년에도 같은 반인 친구도 있었지만,
새로 친구가 된 친구가 많아서 좋았어.
같이 놀 때도 재미있었어.

배려도 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내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6 이름: 최승아



내가 좋아하는 것

아이돌(NCT)

나의 장점

춤을 잘 춘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행복하게 살기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얘들아, 남은 3개월 동안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살자 ㅎㅎ

행복한 함.커.반이 되도록 노력하자!!

함.커.반 19기를 소개합니다.

번호: 27 이름: 최진혁



내가 좋아하는 것

축구, 달리기 등 운동하기

나의 장점

운동을 잘 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축구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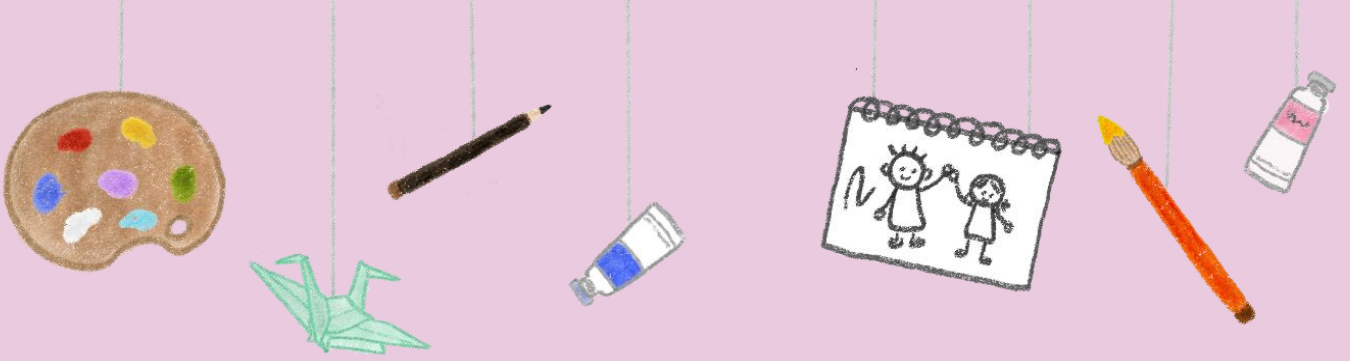
-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함.커.반 19기 친구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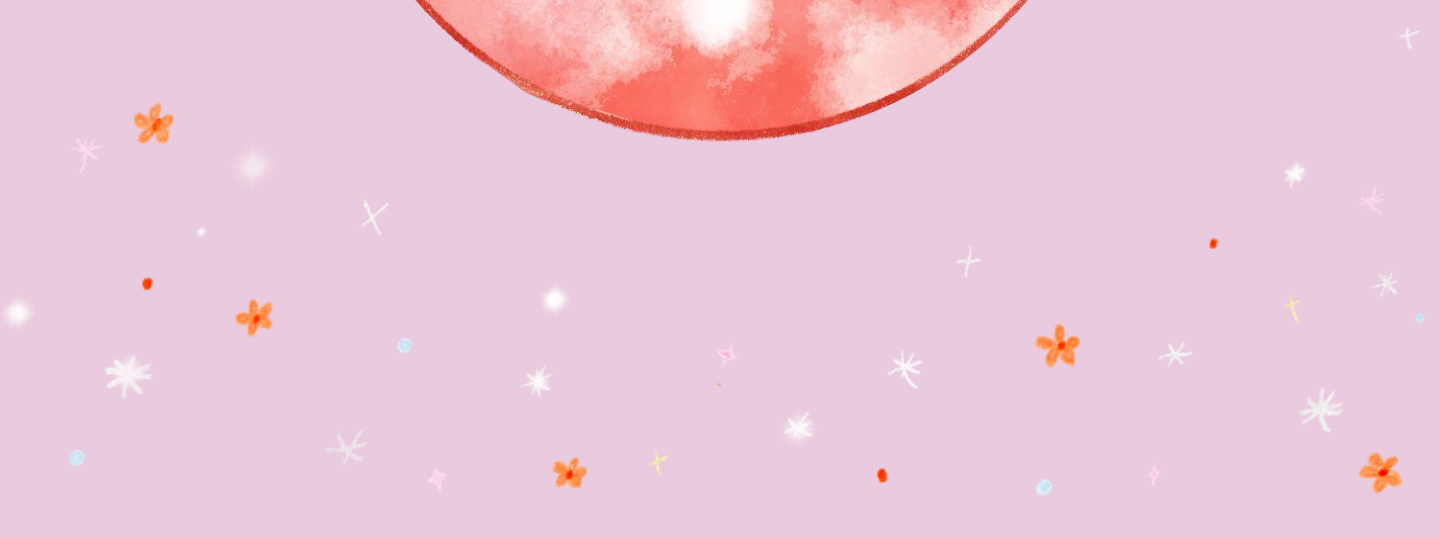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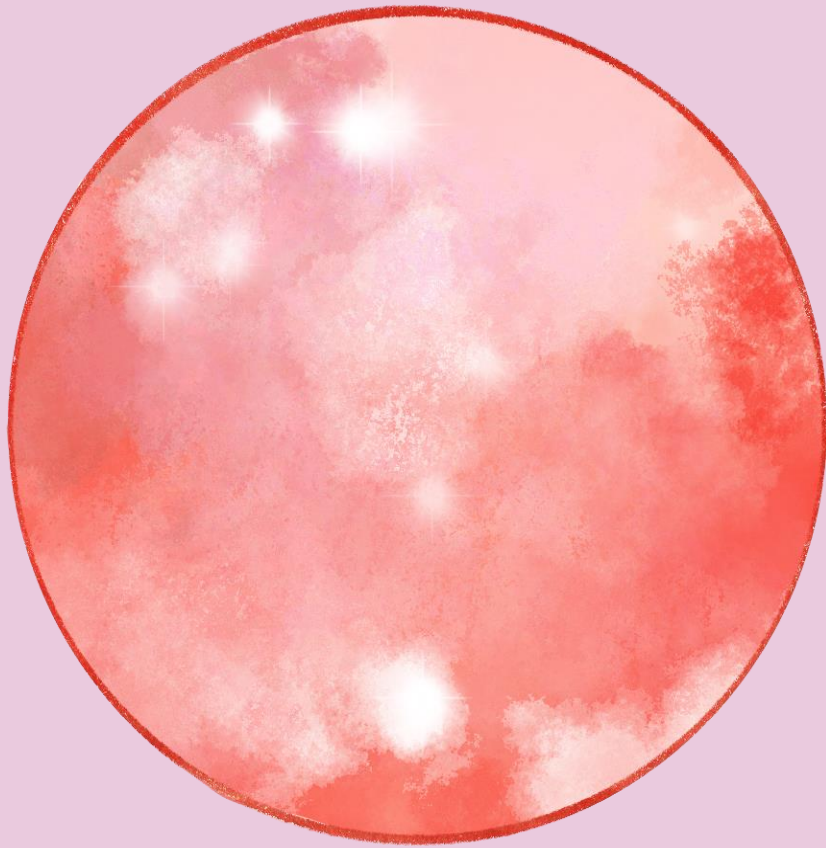
안녕? 나는 진혁이야!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7개월이 지났어!

그 동안도 친하게 지냈지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 남은 시간 더 잘 지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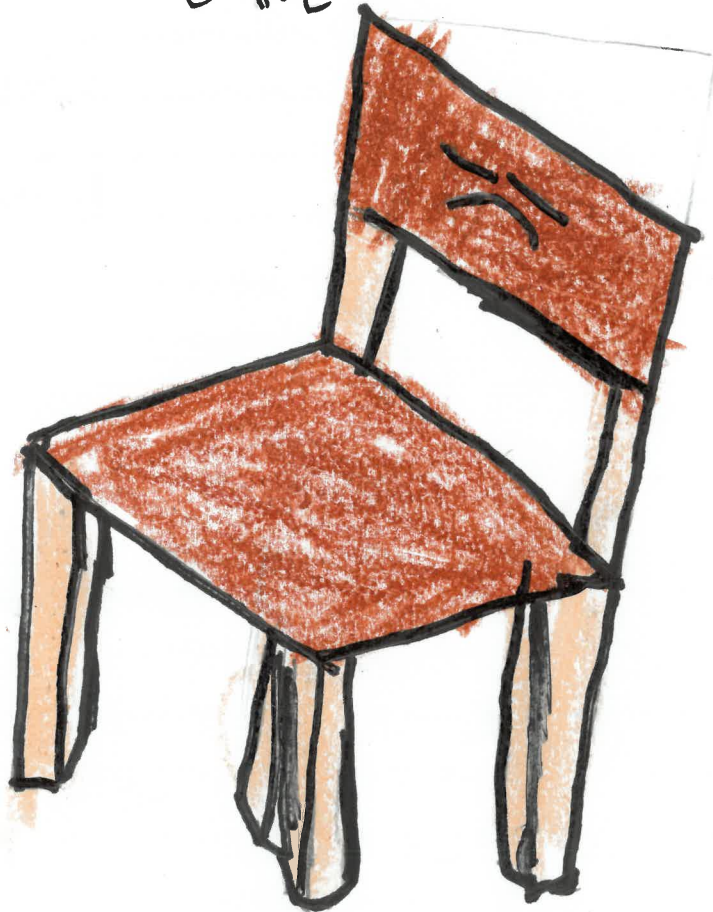


함.커.반 19기 시화 창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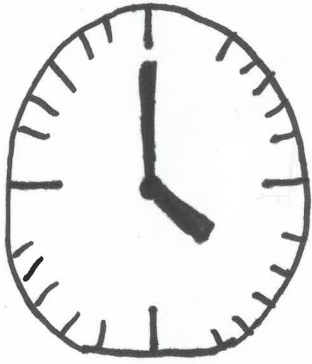


의자

의자에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학교의 학생들이 왔다.
의자는 학생들이 나그네 앉을까 봐 두렵다..
오늘은 또 어떻게 앉을까?... 생각된다..
학생들이 뒤로 젖히거나 계속 앉을까 봐
긴장된다..



이상한 시계



글쓴이: 주한결

방에 걸려있는 시계

나는 하루가 빨리 끝나고
싶은데 시계는 느리다.

하지만 시험시간엔
시간이 초스피드다.

몇 문제 풀면

시험 끝! 이라는
선생님께 목소리가
들린다.



까마귀

김가은

까악까악
내가 주변을 둘러

사람들은 불길한
정조라 생각한다.

내 기분은 생각
안하는 걸까?



9월 11일 수요일

기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두나예요

제 이름은 누구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 선생님 사랑해요 두나김명희

선생님 사랑해요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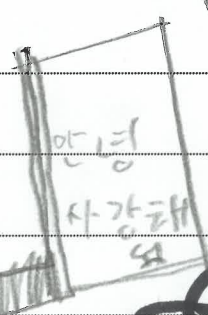
선생님 교실에서 지금이 거라고 나서

그림해요 ♥️ ♥️ ♥️ 사랑해요 두나울림

♥️ ♥️ 내일 만나요



나도
있다
사랑



안녕
사랑해요

선생님
커피

♥️ ♥️ ♥️ ♥️
사랑해요
두나야

술까지, 감까지 즐겨

싶어요 나쁜이거

선생님
사랑

싶어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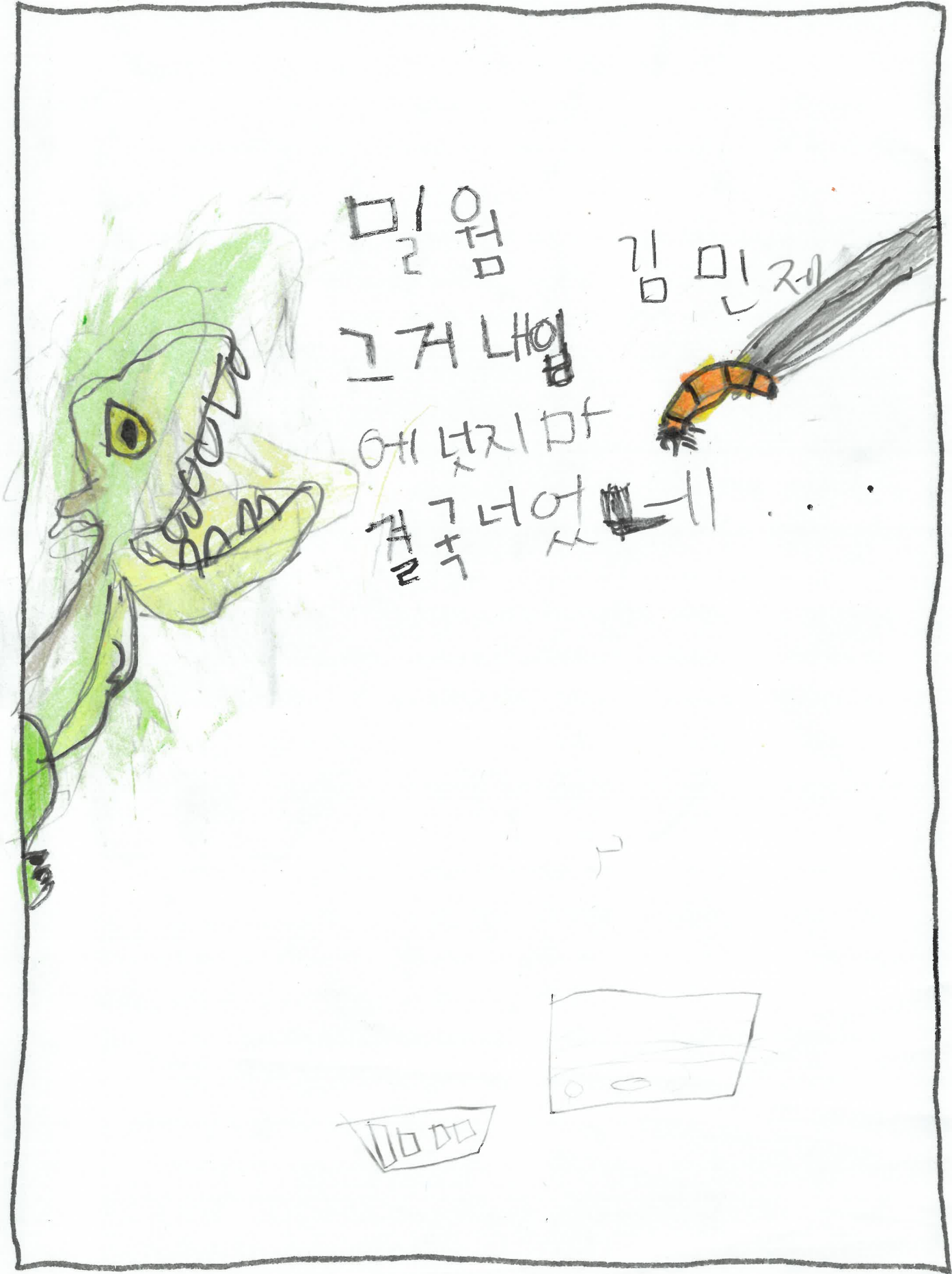
사랑해요

♥️ ♥️ ♥️ 내일 만나요

사랑해요

선생님 3교시 3교시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나울림

편지 2024년 사랑해요 감사 3교시 선생님



미/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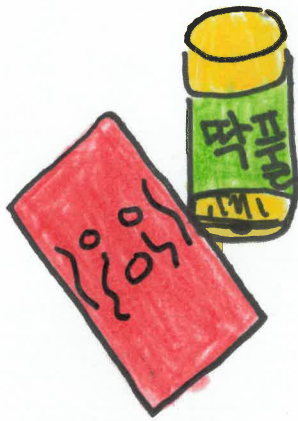
김 민 제

그 거 나 힘

어 냐 지 마

가 거 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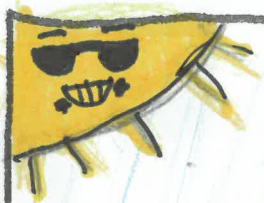


딱풀

김서울

딱풀이 배가 꼬르륵 갑자기
 눈앞에 색종이 먹이감
 도망가는 색종이를 뚜껑을 열고,
 색종이에 쓱 쓱
 색종이는 울고있지만 딱풀
 은싱글싱글 뚜껑을 닫고,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식사 끝
 아직도 배가 꼬르륵





<수영장>

김서현



수영장에 갔다.

치글치글

구워지는

고기도 먹고

침빙청빙

물놀이도

하고

후루룩 후루룩

가면을

먹었다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



커피

김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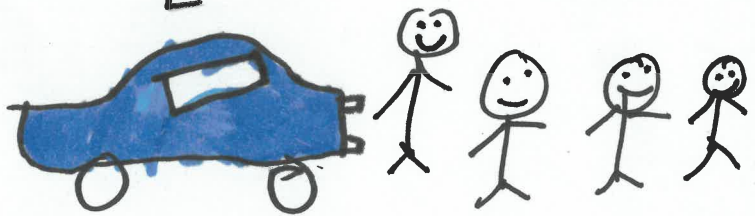
이! 이!
덜! 덜!

우리가족이 없 어질 때 마다

우! 우!
덜! 덜!

우리랑 멀 어질 때 마다

우! 우!
덜! 덜!



지은이: 김아윤

기다리기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먹기위해
누나가 알려준 기다리기를 한다.
하지만, 결국 누나가 다 먹지만
그래도 언젠가 주겠지?
“멍멍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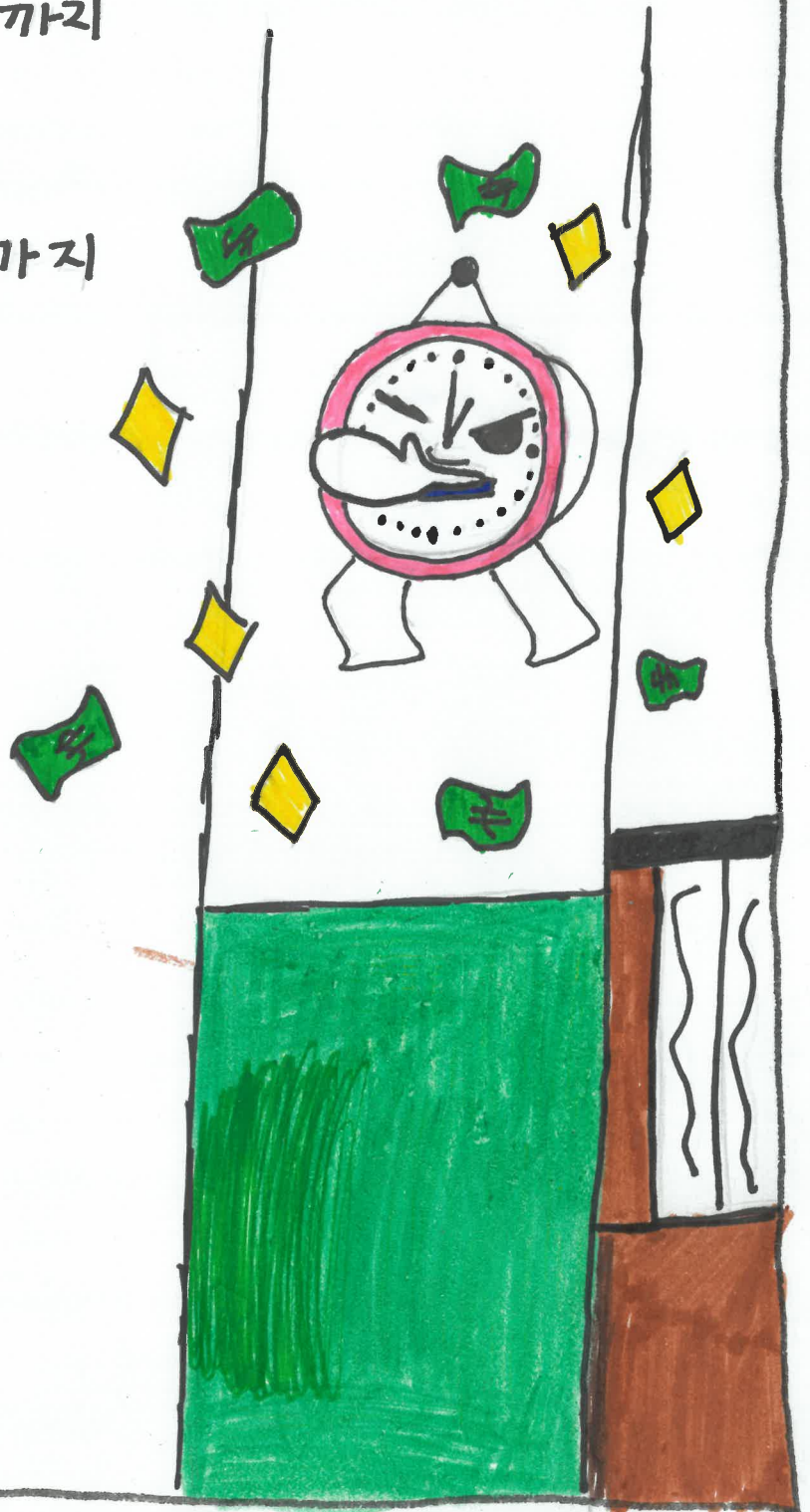
시계

글·그림: 김희원

아침 부터 점심 까지
재깍재깍

점심 부터 저녁 까지
재깍재깍

나 이정도면
월급 받아도
될 것 같다.



어 음

박승찬

퐁당! 빠져든다...

마지막 목욕을 하고

놓는다... 이것이

바로 물아일체....



여러 가지 음식 치른이: 박사후

밥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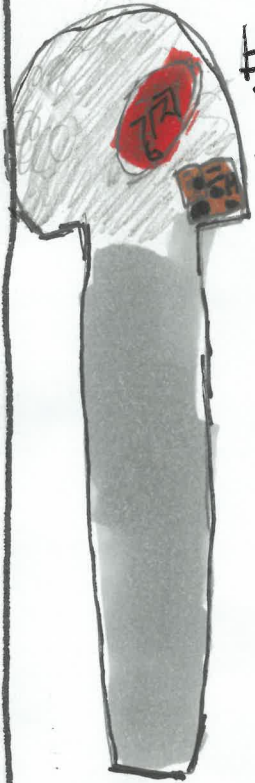
반찬을 올리며

김치와 소시 햄이라 함께 쓱
정말 맛있었다

라면을 끓이고 먹자 (뽀글뽀글) (츄츄츄)
음료를 싸고 같이 먹는다 (꿀떡)

침삼키는 소리

친구들이랑 먹으니 공짜 음식이 줄어든다
맛있었다



피구공

지직!
아야!
공이 뜬다

침방!
아야!
공이 물에
잠긴다.

쿵!
아야!
여기저기
부딪힌다.

퍽!
오예!
사람을
맞추려면
얼굴이
딱



축구화

탕! 탕! 박주하
너무 아프다 그리고 ...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나 좀 도와줘...





핸드폰



박지후

나는 핸드폰이 좋다 왜냐면

영상이 재미있으니까 게임도 할수 있어서,

좋다, 핸드폰이 꺼질 때가 진짜 짜증난다,

내년에 갤럭시를 샀으면 좋겠다 / 핸드폰 꺼지면

안돼!! 난 밥먹을 때 폰 간식먹을 때 폰 자기전에서

폰 나는 하루종일 폰만 만진다, 끝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지후가

지우개

하하 아무도 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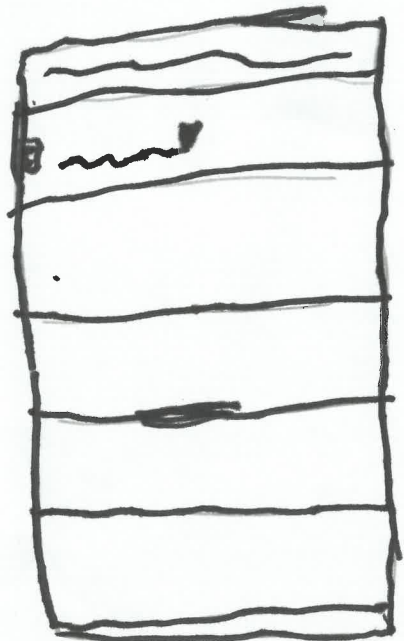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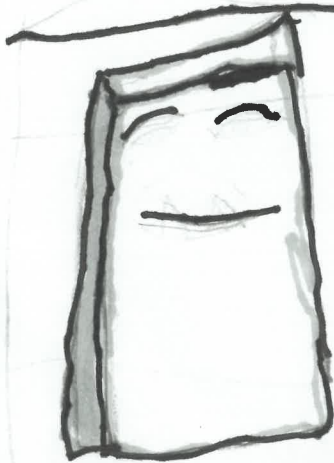
말수 없게 연필도

나를 못 마지

다 와 보라고

하하

연필
나를
말수
없게
만들
어
보
라
고



강아지와 추억
우리 귀여운 강아지 백라엘
짓고 동사도 귀여운
우리 동강아지
강아지랑
산책을 할때가
가장 행복한 우리 강아지
몽이야 사랑해



힘들다
힘들다

백주연

힘들다
힘들다

주인은 날 막는다
친구는 나를 쫓는다

힘들다
힘들다

주인은 날 쫓는다

힘들다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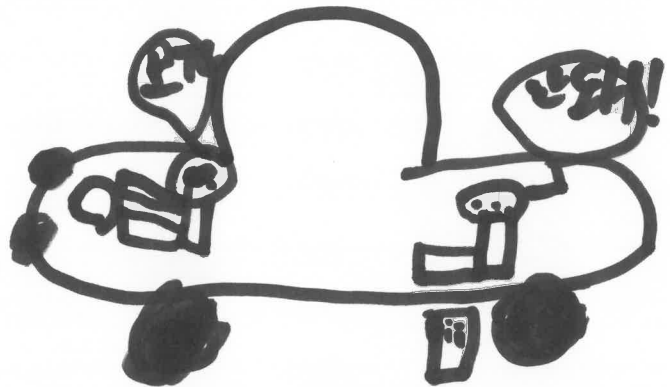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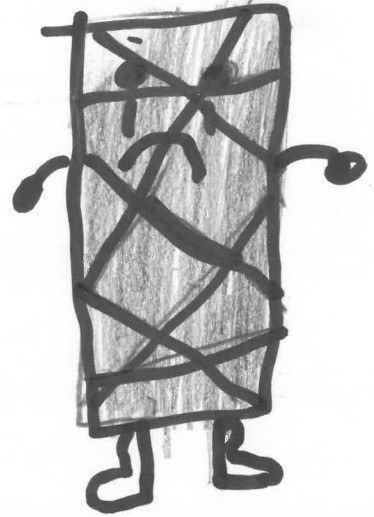
이 시간 이그만 되었으면
나는 지우개



(내편) 휴대폰

변하중

내휴대폰은
나를 싫어한다
왜냐면
내가덜어뜨려서
폰이 깨진다 닥
안돼!!!



사과 나무

서은준

사과가 주렁주렁
나무에서 흔들 흔들
바람이 쓱쓱
어제 비가 와서
이슬이 맺혀 있네?



TV

그것이 나는 TV
시행성 옛날에 나 많은 머가지
리온과 함께 조라리



이곳 위치
하지마... 지금
신디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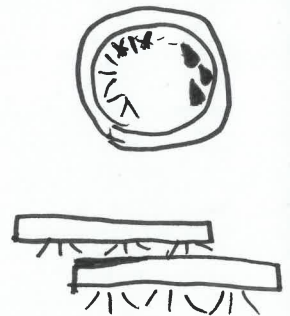
자리를 바바 거리

근로자

윤동준

아주 조금 알하는
LED는 근로자.

집에서 실험한
5MM LED는
어렵게 알한다.
내방의 LED도
연습이 알하는데,
근로자의 LED는
힘들어 하는게 느껴진다.





벚꽃비

꽃잎이 떨어진다.

하나둘 떨어진다.

벚꽃잎 하나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꽃잎 잡으려다.

벚꽃도 떨어진다.

그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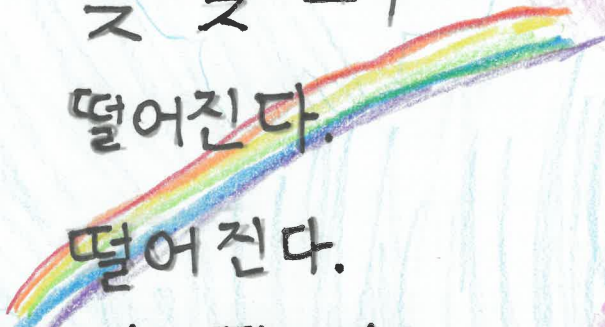
벚꽃 잡으려다가

개나리도

떨어진다.

모두다 떨어진다.

이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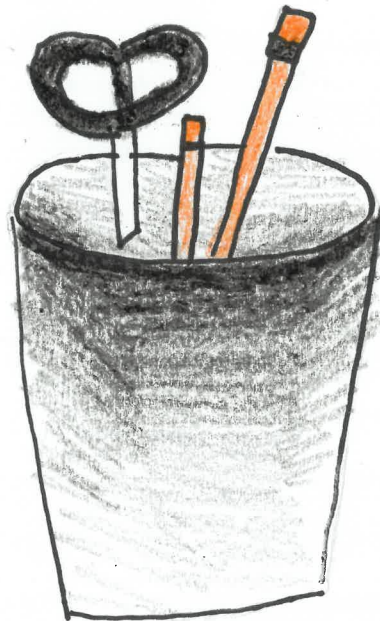
연필

이차원

옛날에는 연필만 쓰던 사람들이
왜 요즘따라
샤프만 쓸까?

왜 나보다
샤프를 더 쓰겠을까?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까?



연필

전개

‘사각 사각’

조금씩 바뀌는 내 머리 스타일

깎으며 내 머리가

느껴주게 된다

‘뽕!’

힘자랑하려고 나를 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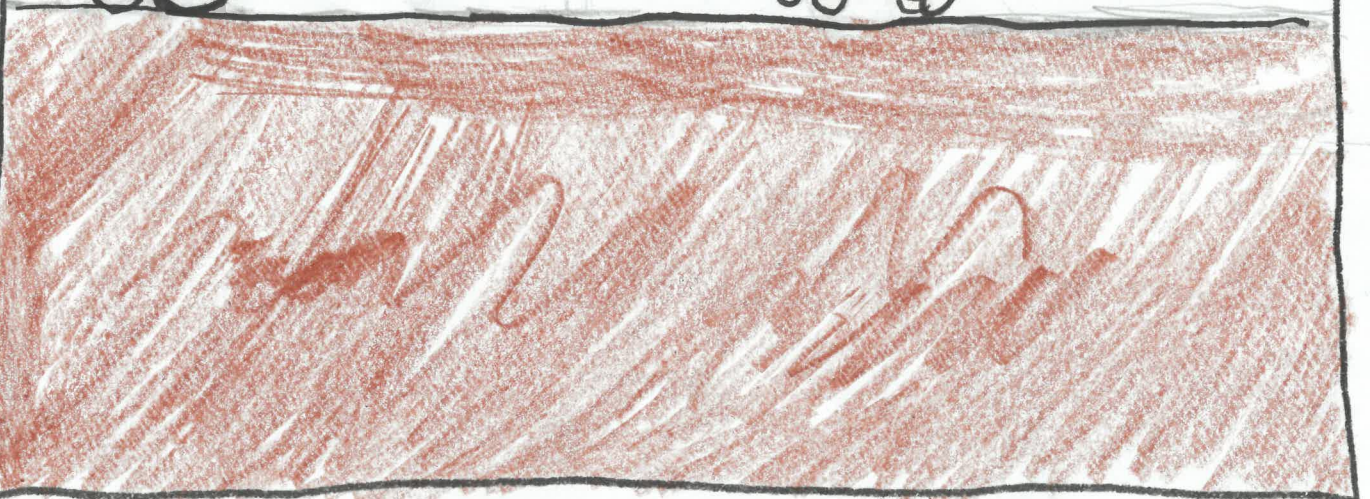
내가 아픈 건 생각 안 해?



길고양이

최승아

처벌 처벌
누군가 날 때 길이가
두렵다
누군가
날 데려가주면
좋겠다
너무 아답다
누군가 손을 뻗어준다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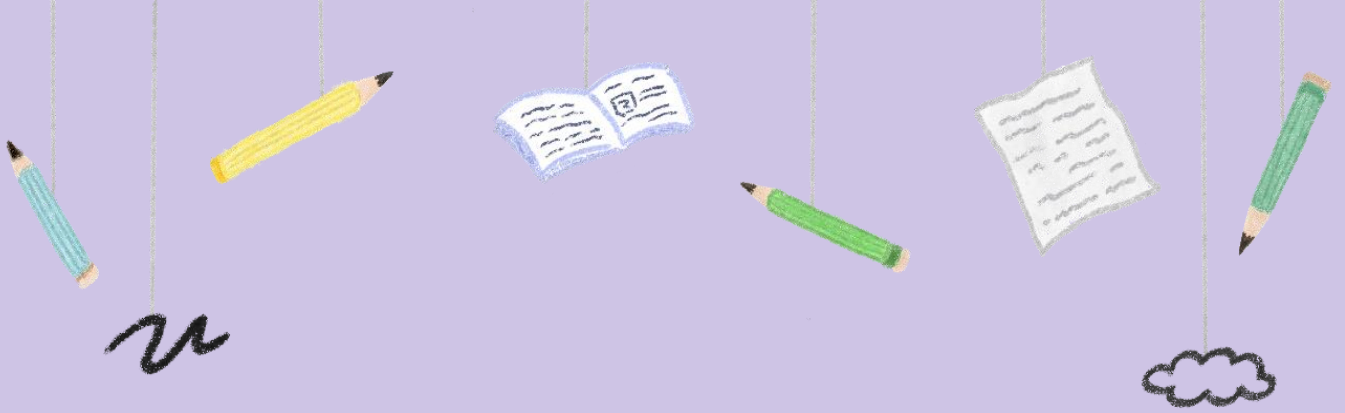


선풍기

최진혁

여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쓰지만
여름이 지나면
나는
창고로 이동한다.

사람들이 내 덕분에
행복하면 창고에
들어가고 나는 행복해.



함.커.반 19기 글쓰기 창작소



제목 : 거짓말만 하게 된 하루

글쓴이 : 허준성

난 잠을 자고 일어났다.

내가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나는 거짓말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데 거짓말이 나오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를 다 싫어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다. 몇 초 간 바람을 쐬고 집으로 왔다. 나는 집으로 오자마자 생각나는 건 오직 거짓말이 나오는 것 이제 어떻게 될까?

제목:나만 하루가 25시간이 된다면?

글쓴이:구한결

나에게만 1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럼 난 24시간 동안은 놀고, 먹고, 자고를 반복할 것 같다.

그런 다음 남은 한 시간은 무엇을 해볼까?

정했다.

그건 바로 라면을 끓이고 좀 먹다가 밥을 말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2개를 먹고 책을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제목 : 내 가방은 밤에 어떤 생각을 할까?

글쓴이 : 김서울

어느 금요일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다.

학교 쉬는 시간에 할 게 없는데...

가방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으악! 너무 아파.

옆구리가 찢리고, 허리도 아파.

핸드폰도 넣고, 너무 무거워.

(학교 도착!)

내 가방 : ‘이제는 편히 누워야지.’

다른 친구 가방 : “야! 너 다크써클이 장난 아니야!

아니 이 주인은 뭐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다른 친구 가방 : “아이고...힘들겠다. 아니! 지금이 기회야!”

(몇 시간 후)

선생님 : “행복하세요! 애들아, 실내화 가지고 가!”

내 가방 : “벌써 다 끝났어?! 왜 이렇게 빨라! 실내화를 넣어서 더 아프네ㅠㅠ 아유..”

(집 도착 - 가방 집어 던짐)

내 가방 : “아!야!야 나 데리고 병원 좀 가!!”

(저녁)

엄마 : “야!김@@ 가방 제자리 놓으라고 했지?”

내 가방 : “아, 진짜 아! 이게 바로 행복 인가?”

제목 : 내 연필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김서현

난 평범한 연필이다.

내 주인은 난 많이 쓴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집에서, 그림을 그릴때도, 글을 쓸 때도,
시를 쓸 때도 나를 쓴다.

힘들면서도 기쁘기도 한다.

난 내가 다 쓰일 때까지 쓰였으면 참 좋겠다!

제목 : 바닷물을 달콤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편지쓰기

글쓴이 : 김아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윤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바다를 가면 바다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놀다가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너무 짜니까 아주 달콤하게 설탕을 한...5000g 넣어주세요.

그러면 동물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고,
벌레와 곤충들도 다 좋아하네!?!?

완전 럭키 아윤이잖아~^^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엔~!!

제목 : 하루가 25시간이라면?

글쓴이: 김수현

난 하루가 25시간이라면 게임을 30분을 더 한다.

왜냐하면 평소에 게임 시간이 짧아서다.

30분을 더 해야 만족할 것 같다.

그리고 남은 30분은 배고프니깐 라면에다가 치즈 섞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자전거 타고 티비보고 화장실도 가고 마지막으로 잔다.

제목 : 내 연필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김희원

희원이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나를 계속 씹고, 스테이플러로 나의 몸을 찍기도 한다.

너무 괴롭다. 나도 다른 연필처럼 제대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그만 좀 돌렸으면 좋겠다. 너무 어지럽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연필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나만 괴로울 수 없으니까..

네임펜이 제일 불쌍하다.

계속 희원이한테 씹히고 돌아가니까. 네임펜도 불쌍하다.

계속 희원이랑 같이 있을 바엔 필통에서 떨어져서 가출하고 싶다.

진짜로.....

제목 :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세요.

글쓴이 : 박승찬

잘생기고 존경하고 완전 멋진 신님 안녕하세요?

혹시 바닷물을 달콤한 음료수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살짝 먹어보았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지금까지 짠 것만 먹어서, 너무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달한 음료수로 바닷물을 만들면, 동물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 제 부탁 꼭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목 : 나만 하루가 25시간이 된다면

글쓴이 : 최승아

나에게 1시간이 더 늘어났다?!

난 나만의 취미 생활을 하고싶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내 취미가 뭔지 궁금해서 1시간이라도 내 취미를
알아가보고 싶다.

다들 각자 하고싶은 게 있을꺼라고 믿는다.

하지만! 난 나만의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걸 한 번 짚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꺼 같다.

그래서 난 최종적으로 날 위한 취미 생활을 알아볼 것이다.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제목 : 신에게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글쓴이 : 박시후

나를 오늘 신에게 소원을 빌어 보려고 한다.

나는 오늘 밤 신에게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런 소원을 비냐고?

왜냐하면 수영 하다가 실수해서 짠 바닷물 때문에 토를 한 적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편지 내용)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시후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유는 수영 할 때마다 입에 들어가고 먹어도 상관없는 달콤한 바다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목 :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세요.

글쓴이 : 김민제

하나님,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과학자들도 새로운 생태계에 좋아 죽을걸요?

그래서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목 : 거짓말만 하게 된 하루

글쓴이 : 박정호

하루 아침에 거짓말만 나오게 된다면, 좋을 것도 같지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난 친구에게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로 비판을 하게 되어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마냥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난 친구에게 비판을 하려 했는데 거짓말로 칭찬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친구와 더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난 아무말도 안 할 것이다.

제목 : 내 색연필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서형석

나는 색연필 중에 가장 어두운 색깔 검은색이다.

나는 17색이랑 같이 산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 바로 회색 또는 은색이라고 불리는 친구다.

하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하얀색이다.

이유는 나랑 정반대의 색깔이기 때문이다.

요즘 나(검은색)은 아주 큰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내 주인이 나 대신 연필이라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 : 의자는 내가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박주하

나는 주인이 없을 때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주인이 앉을 때 너무 무겁고 아프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꾸 두 다리를 들게 한다.

얼굴도 너무 눌러졌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주인이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제목 : 내 의자는 밤에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박지후

의자는 물건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자가 만약 나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다.

내가 딱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무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퓌 돌려보니까, 의자는 마치 기절한듯이 있었다.

의자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

나는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방으로 가 봤는데, 의자에 물이 젖어 있었다.

나는 수상했다.

그래서 의자에게 말을 했다. 근데 의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순간 무서워졌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까아아아악!

제목 : 물건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박현승

[내의자]: 하, 드디어 갔다. 다들 좀 쉬어.

[시계]: 야, 근데 솔직히 내가 제일 힘들지 않냐? 계속 1초도 안 쉬고 돌아가잖아.

[철판]:난 너무 좋은데. 애들이 계속 씻겨줌. ㅋㅋ

[교과서]: 살려줘.....

[물통]: 야!! 물은 채워놓고 가!!

[찾아가세요 물건]: 나 좀 꺼내줘....

[시간표에 있는 수학]: 왜 나만 싫어해ㅠㅠ

[수학 문제집]: 나 좀 봐라!!

[핸드폰]: 야, 나 놓고 가지마....

제목 : 내 의자는 밤에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백라엘

내 의자는 밤에 무슨 생각을 할까?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뉴스에 제보를 넣었다.

‘답장이 안 오네..’ 잠이나 잘려고 침대에 눕는 순간 알림이 왔다.

내일 기자가 온다는 알림이었다. 다음날 기자가 왔다.

[기자]: 저는 오늘 제보를 받았습시다. 바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의자]: 안녕하세요?

[기자]: 만나서 반갑습시다. 의자씨는 밤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의자]: 아이들이 집에 가고나면 의자를 괴롭히지도 않고 낙서도 안해서..항상 이 시간만 기다려요.

[기자]: 네, 알겠습시다. 지금까지 의자의 생각이었습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 거짓말만 하는 날

글쓴이 : 백주원

아침에 일어나니 ‘오늘은 거짓말만 하는 날’이다.

‘뭐지?’ 난 잘못 들은거라 생각했다.

아빠가 “나와 밥 먹어.”라고 했다.

나는 밥을 먹으러 갔다.

밥을 한 입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아빠! 너무 맛 없어요.”

“뭐! 맛 없다고! 정 맛 없으면 먹지마!”

혼났다. 나는 순간 아 그 말이 생각났다.

‘설마 그 말이 사실인가?’ 나는 테스트를 해 보았다.

(나는 잘 생겼다.) “나는 못 생겼다!”

?!! 진짜 거짓말만 나왔다.

너무 신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바로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곤 바로 실천했다.

가끔 헛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 하루가 끝났다.

신기하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제목 : 나만 하루가 25시간 이라면?

글쓴이 : 변하준

나만 하루가 25시간이면 30분 더 잘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티비를 보면서 밥을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프고, 밥 먹을 때 심심하니까.

이러고 나면 또 자고 싶어져서, 자고 일어나면 밥을 먹으면 20분이 걸린다.

밥으로는 간단한 라면을 먹는다. 라면은 너구리 아니면 진매를 먹는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나머지 십 분으로 게임을 한다. 왜냐하면 재밌고 게임을 더 키우고 싶어서이다.

제목 : 나의 주인에게(책의 고민)

글쓴이 : 김가운

반가워.

난 책이야.

나의 고민은...요즘에 주인이 책을 잘 안 읽어서 고민이야.

분명히, 5~6살에는 잘 읽었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도 안보이던데?

진짜 서운해!

그래도, 언젠간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른 책들이랑 잘 잘 있다고 전해줘!

-책 보냄-

제목 : 신에게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달라고 설득하기

글쓴이 : 서은준

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등한 인간 서은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바다 때문에 죽는 인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쓰나미...!

그것도 거대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 집니다.

심지어! 비행기와 수많은 함선... 들이엎어진곳이 바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 “버뮤다 삼각지대”

이런 지역이 모두 바다입니다!!!!

심지어 바다 때문에 없어진 마을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틀란티스!! 심지어 그 시대에 만든 탑이 놀랍습니다. 그건 바로 신전도 만들고 심지어 동근 원형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을이 바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루려하는 목적은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다에서 죽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바닷물이 달콤해지면 사람들이 모두 바닷물을 먹기 위해 수상도시!

WOW! 이런 발달이 이루어질 거 같아서 이런 편지를 보내봅니다.

부디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 거짓말만 하게 된 하루

글쓴이 : 윤동준

내가 거짓말만 하게 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기 때문이다.

오늘은 평일이었다. 가기 싫지만, 학교에 가야 하니까 갔다.

학교 애들이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나를 보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었다.

나는 목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내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근데 왜 말을 안 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까와는 반대로 “아까 내 말은 맞는 말이야.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라고 말했다.

하하, 이게 편법이란 것이다. 하지만 또 친구들은 벌이라도 본 듯 끔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저주가 풀린 것이다!! 오늘 참 살기 힘들 것 같다. 이만~~

제목 : (리)모콘이의 하루

글쓴이 : 이은채

나는 리모콘이다. 내 주인은 나에게 모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나는 모콘이라는 이름이 좋다.

그런데 하루는 말이다. 주인이 tv를 보다가 나를 던지고 학교로 갔다.

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쇼파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인이 집으로 왔다.

곧바로 주인이 tv를 보려고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콘아 어딴니)를 시전하였다.

그러다가 나를 발견한 주인이 화나서 나를 던졌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했다.

나는 그래도 tv를 보는 주인이 좋다. (끝)

제목 : 내 가방의 하루(내 가방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전가을

안녕? 나는 '전가을'의 가방이야.

나의 하루를 알려줄게!

내 주인은 아침 7시50분쯤부터 학교에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활동해. 안에 책이랑 종이랑 필통이랑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너무 무거워.

아무튼 반에 도착하면 물통이랑 필통, 걸옷을 꺼내 그러면 조금 살 것 같아. 학교가 끝나고 학원이나 집으로 가 학원으로 갈 때도 학원에 투,툭 던져 놓으면 너무 아파.ㅜ

그리고 집 가서 주인이 공부하면 그 때부터 나는 조금 쉴 수 있어.

이게 내 하루야. 그럼 안녕.

제목 : 내 지우개는 무슨 생각을 할까?

글쓴이 : 이채윤

오늘 하루도 필통 안에서 시작된다.

주인이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나를 필통에 꺼내 지운다.

그럴 때마다 나의 몸은 점점 없어져 간다.

그리고 심심할 때는 날 샤프심이나 연필로 찌르고, 가위로 잘라 구멍이 나거나 잘린다. 날 계속 쓰다 보면 몸이 점점 없어져 주인은 나 말고 다른 새로운 지우개를 쓰거나 사서 나는 버려진다.

그때마다 나는 힘들다.

내가 점점 몸이 없어질 때 주인은 “오늘 새로운 지우개 사야지~”라고 말한다. 그때마다 나는 무섭고 떨린다.

주인은 지우개를 사면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필통 안에 박혀있다. 그리고 필통 청소를 하면 나는 버려진다.

내 몸이 없어지지 않게 일부로 날 샤프심이나 연필로 찌르고 가위로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목 : 신님,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세요

글쓴이 : 최진혁

- 신님에게 -

안녕하세요, 신님? 저는 최진혁이라고 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닷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예요.

바닷물이 달콤하게 바뀌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바닷물이 달콤하게 바뀌면 사람들의 물부족 현상이 관촬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바다에 관심을 갖게되면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더 많아져서 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면 지구온난화도 관촬아지면서 해양생물도 더욱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생태계도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이 때문에 바닷물을 달콤하게 바꿔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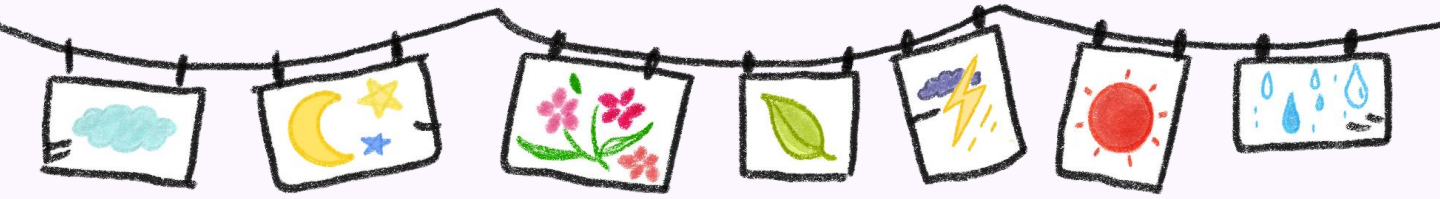
- 최진혁 올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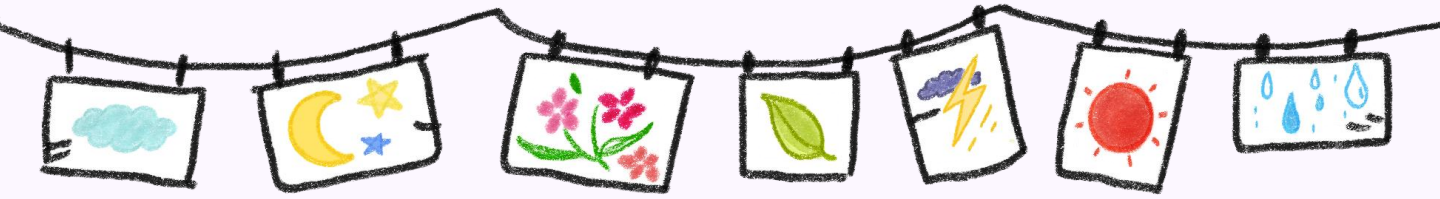
함.커.반 19기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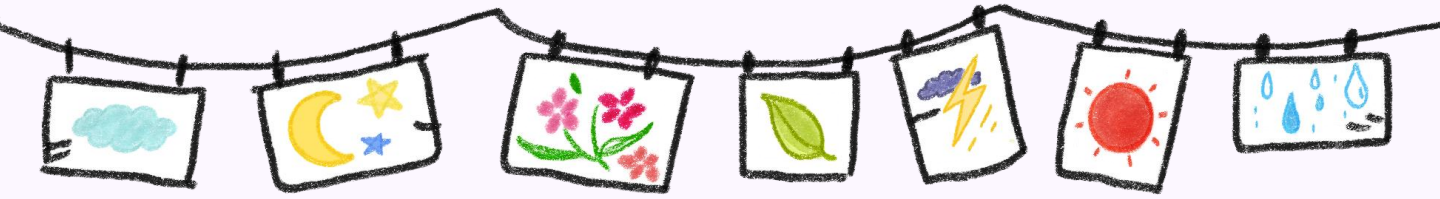
우리들의 순간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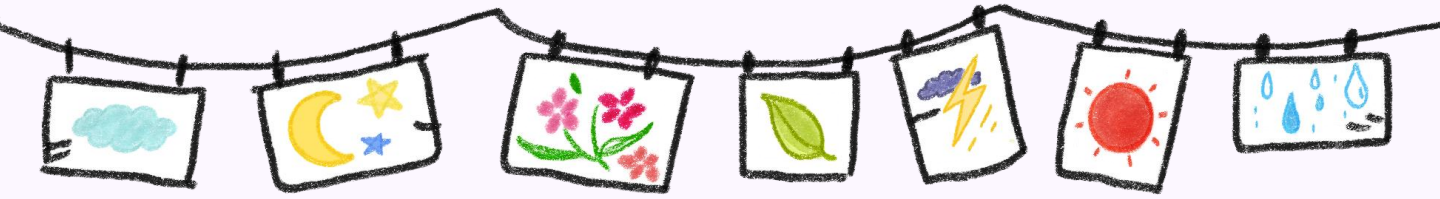
우리들의 순간 포착



우리들의 순간 포착



우리들의 순간 포착



우리들의 순간 포착

